

하나의 학교, 두개의 후마?

학사제도 차이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2011년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정식 출범 전까지 우리학교의 교양교육은 서울캠퍼스(서울캠) 교양학부, 국제캠퍼스(국제캠) 교양학부, 학부대학으로 나뉘져 있었다. 후마를 통해 분산된 관리체제를 총괄하고 학과나 캠퍼스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교양교육이 가능할 것이 기대됐다. 하지만 서울캠과 국제캠 사이 남아있는 몇몇 후마 학사제도 차이가 후마 출범 후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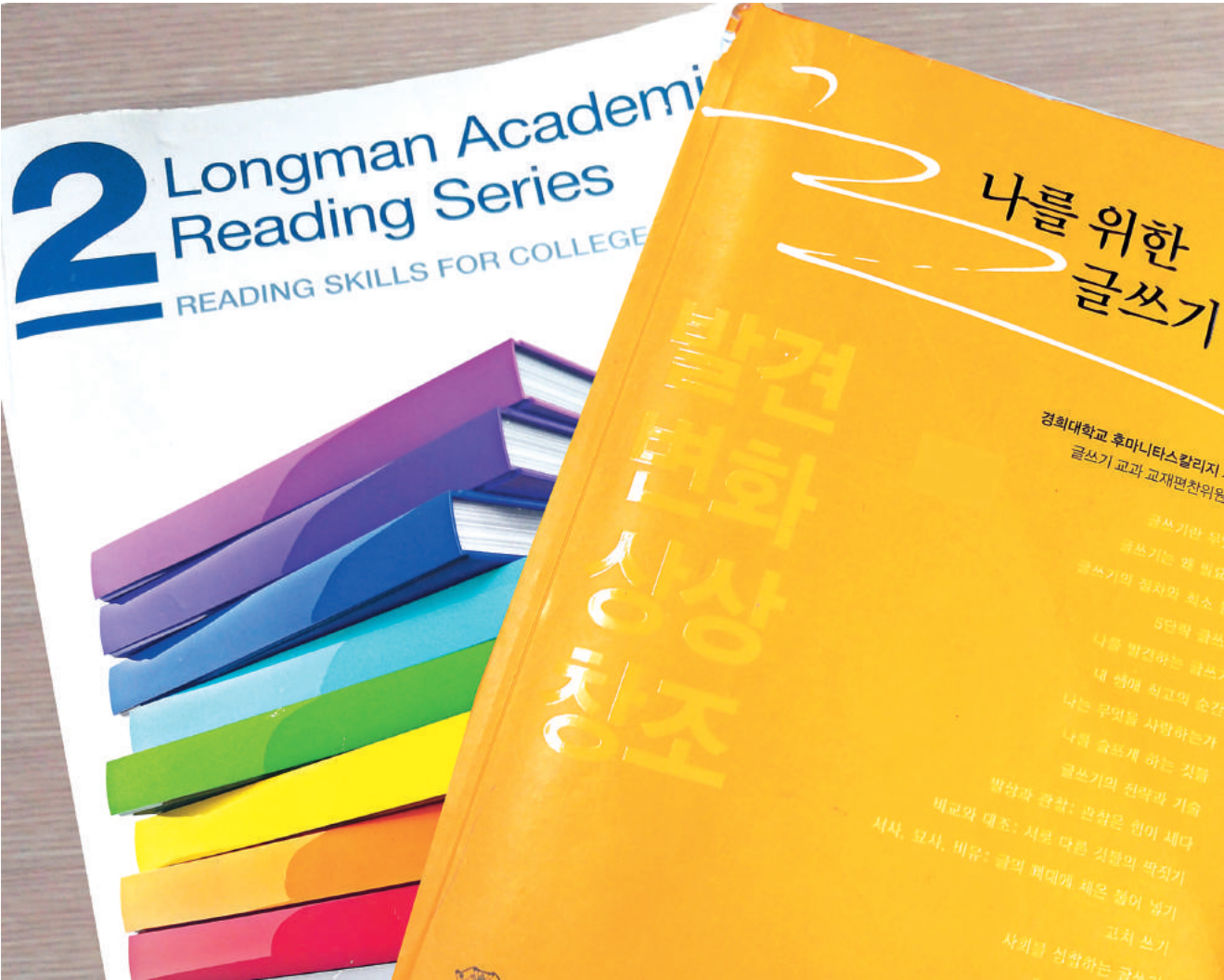
서울캠에선 후마 기초교양 ‘글쓰기’ 과목의 성적평가가 절대평가로 이뤄지는 반면, 국제캠에선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후마 설립 이후 계속된

성적평가 방식 논란

서울캠 역시 후마 설립 초기에는 글쓰기 과목이 상대평가 방식이었다. 후마 출범 후에도 중핵교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교양 과목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는 동안에도 상대평가가 교양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 지난 2010년 후마 설립 전 논의 과정에서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위원회(대학생위원회)’는 “후마의 기본 목적인 학생 개인의 소양을 기르는 것에 부합하도록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학점제도 보다는 ‘P/N’ 제도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함”을 건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방식 전환을 요구했다. 2012년 3월, 서울캠 후마는 대학장 주재 회의를 통해 글쓰기와 시민교육 과목의 성적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확정했다.

국제캠은 서울캠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다. 당시 국제캠 후마 학장이었던 이영식(응용화학) 교수는 지난 2013년 우리 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2012년 논의 당시 국제캠 글쓰기 교수들 사이에서는 절대평가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제캠 후마 측은 “2012년 당시 학점 인플레이션과 일부 교수가 작위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할 가능성이 우려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해 양 캠퍼스 교수 간 성적평가방식에 있어 시각차가 존재했음을 밝혔다.



양 캠퍼스 사이 남아 있는 후마 학사제도의 차이가 출범 당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캠 글쓰기 과목 PD교수를 맡고 있었던 김진해(국어국문학) 교수는 “글쓰기 과목에선 경쟁보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의 협력, 상호작용이 강조돼야 하는데 상대평가 방식으론 그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시도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서울캠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을 때 국제캠도 함께 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개강 이후 국제캠은 여전히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했다”며 “국제캠은 서울캠과 달리 학생회 측으로부터 성적평가방식 전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방식을 고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적 평가 제도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양 캠퍼스가 후마를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발췌한 ‘후마 재도약을 위한 특별보고서 위원회(특보위)’에 참여한 국제캠 후마 이준태 교수는 “아직까지도 양 캠퍼스 사이에 교양교육이 왜

필요한가, 전공과 교양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며 여전히 시각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캠 국제캠 사이

후마에 대한 시각 차이 인정

특보위는 양 캠퍼스 학사제도 차이로 인해 하나의 후마가 두 개로 운영됐음을 지적했다. 특보위 이준태 교수는 “중핵교과 의 경우 ‘누가 더 많이 고민했고 더 고민했느냐’를 계량화하는 것 자체가 과목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특보위를 통해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제캠 후마 교수진의 견해가 지난 2012년 성적평가방식 전환 논의 당시 견해와 사뭇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준태 교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중핵교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양

교육에서도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위를 총괄하는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 또한 “전면적으로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것이다”며 “결국은 절대평가 혹은 P/N방식의 성적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 주장해 교양 과목 평가방식에 변화가 따라야 함을 시사했다.

강명주(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6) 씨는 “서울캠은 가능하고 국제캠은 그러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 것 같다”라며 “캠페스 명칭 변경도 중요하지만 양 캠퍼스 간 학사제도 차이를 줄이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교양 영어에 대한 학사제도 또한 양 캠퍼스 간 차이가 있다. 서울캠은 공인영어성적(TOEFL, TEPS, TOEIC)을 통해 후마 기초교양 영어교과 이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캠은 ‘국제화 추진 전형 입학자’, ‘외국대학, 외국대학 부설기관, 외국 공인 교육기관 프로그램 이

수자’,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Intensive Program이수자’ 등에 기초교양 영어교과 이수를 면제한다. 하지만 국제캠에는 영어교과 이수면제 제도 자체가 없다.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은 “어떤 학생에게는 대학영어 과목의 수준이 낮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러한 학생들로부터 이수면제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2014년에 이수면제 제도를 정식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캠 후마 측은 “이공계 및 예체능계가 많은 국제캠의 학과 특성을 고려해 이수면제 제도를 추진하지 않았다”며 국제캠에 해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캠에만 존재하는

영어과목 이수면제 제도

2014년 논의 당시 국제캠 대학영어 PD교수를 맡았던 신명아(글로벌커뮤니케이션)교수는 국제캠이 이수면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 다르게 설명했다. 신교수는 “대학영어 과목은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영어실력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어느 정도의 실력만 되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인문지식 습득에 저해된다고 생각해 학장님과 상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현(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4) 씨는 영어1, 2 과목을 들을 당시 국제캠에도 영어과목 대체 제도가 있었다면 대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영어교과는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수업이라 생각하는데 영어전공자나 높은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학점을 투자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낭비라고 느껴진다”며 “국제캠에도 국제대학이나 외국어대학 학생 그리고 그 외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제도를 서울캠에서만 유지하는 것은 하나의 캠퍼스라는 학교 기조에 모순된다고 생각하며 국제캠캠퍼스 학생들이 상대적인 손해를 입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1년 출범한 후마는 이번 특보위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의 교양’을 위한 재도약을 앞두고 있다. 설립 초기 후마가 세웠던 ‘탁월한 개인, 책임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 양성’의 목표가 양 캠퍼스에 모두 공유돼야 할 것이다.

2017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보충훈련 공고

1. 개요

가. 훈련대상: 2017년 1학기 기본교육 훈련(8시간) 불참자, 2학기 복학생으로 '17년 훈련 불참자 전원
나. 훈련장소: 용인예비군훈련장(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목동로 87 / 네비게이션: 바른고기 검색)
다. 훈련일자

훈련 일자	훈련 대상	시간
11월13일(월)	• 국제대학 • 공과대학 • 생명과학대학 • 외국어대학 • 응용과학대학	09:00~18:00
11월14일(화)	• 예술디자인대학 • 전자정보대학 • 체육대학 • 일반 / 특수대학원 • 2시간 대상자 전원(작게 6시간 이수자)	

2.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 착용시 입소 불가)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여권) 필히 지참할 것

3. 교통안내

가. 학교 지원차량: 학교정문 출발(7:45분) → 용인시 예비군 훈련장 도착(8:50분) / 강남역 지원차량 없음
※ 군부대 차량(미니버스 24인승) 용인버스터미널에서 08:00, 08:30 출발(2회 운운)
나. 개인 입소자는 학교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약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병소에 도착

4. 유의사항

가.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 · 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나. 대상자 명부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훈련 3주전 공지)
다. 훈련 입소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음주자는 입소가 불가하니 훈련 전 음주행위 자제
라. 입소통제 지침: 09:00이후 지연 도착자는 입소불가 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됨.
마. '17년부터 교통비(7,000원) 지급방법 변경: 현금 → 계좌이체로 변경(본인명의 계좌잔 가능함)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되오니 희망하는 계좌 또는 휴면계좌는 수정하시기 바람
바. 무단불참으로 인한 고발 및 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는 개인 책임임에 유념
※ 금번 보충훈련 불참자가 추후 보충훈련에는 차관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입소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금번 보충훈련 전원 참석 요망
사.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시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직장 예비군 연대장

2017년도 향방기분 1차 보충훈련 안내

1. 훈련대상: 2017년 향방기분훈련 불참 및 연기자, 2학기 복학자 중 향방기분훈련 대상자
2. 장소: 금곡예비군훈련대
3. 일정

훈련명	훈련일자	대상	소속
향방기분 1차 보충훈련	9.28(목)	1~3시간 대상자	소속 구분 없음
	10.13(금)	4~8시간 대상자	문과대학, 이과대학, 호텔관광대학
	11.3(금)	4~8시간 대상자	교원, 대학원(일반/특수/전문), 간호학대학, 경영대학, 무용학부, 미술대학,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자율전공학과, 경영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4. 이동방법

가. 단체이동
1) 이동수단: 45인승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2) 출발장소 / 시간: 청운관 앞 도로 / 당일 07시50분 출발
나. 개별이동
1) 시내버스: 30번(청량리/휘경동), 23번 / 1-4번(천호동), 93번(강변역)
2) 전철: 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5. 참고 및 유의사항

가. 훈련 소집통지서는 휴대폰 문자,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 / 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게시판 등에 공고 및 공지되며,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서 직접 교부
나.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 · 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다. 복장(전투복, 전투모, 군화 등)불참자 훈련입소 불가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마. 훈련장에 반드시 09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이후 도착자는 입소 불가
바. 훈련 무단불참으로 인하여 고발/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유의
사. 공결처리를 위한 훈련참가 확인서는 훈련종료 후 다음 근무일부터 예비군연대본부 방문시 발급함
아.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면제됨
자. 훈련일 기준 휴학 등으로 본인 학적이 재학중이 아닌 학생은 훈련참석 불가
차. 훈련, 학사 등 정확한 정보수신을 위해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현재 사용 중인 E-mail과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수정
카. 기타 문의사항은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센터 예비군연대본부(☎961-0148~9)로 문의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장